희망세상 (2005년 9월호 / 36호)

· 발행인 : 함세웅
· 발행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발행일 : 2005년 9월 1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목수망치 사건

누구는 여름날이면 이십년 전 사건을 떠올린다. 더울수록 그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리며 더위를 식힌다. 납량특집도 그런 납량특집이 없다. 무시무시한 기억이다. 소름이 쫙 끼친다. 그러다가 종래에는 더 더워진다. 부르르 주먹을 떨다가도 이내 맥을 놓는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한숨을쉬며빙그레웃고만다. 부질없다는듯입맛을쩍쩍다시는것도싱거워머리를절레절레흔들고일상으로돌아간다. 다지난일이다.

1986년이면 제5공화국의 전횡이 가히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때였다. 당시 민심은 미국의 자본, 금융, 상품시장개방강요를위한갖은압력으로인하여만신창이가되어있었다. 굴욕적이게도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은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였다. 이른바‘ 5 · 3 인천민주화운동 ’등 민족자주·민중민주세력을무자비하게짓밟았다. 농민, 노동자, 학생, 민주인사들에게갖은고문을통해용공조작과구속을서슴없이저지르던시절이었다.

농민들의삶은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다. 도처에서목숨을끊었다. 수입 소고기파동으로소값은똥값이되었다. 정부에서권장한소사육의꿈으로부풀어있던농민들은뒤통수를맞고나가떨어졌다. 자포자기한 농민들은 소를 때려잡아 빚잔치를 벌였다. 그때만큼 농촌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진동한때가있었을까. 그렇게탈탈털고후식(?)으로농약을마시는경우도있었다.

수입 소고기 파동

궁벽한경상도산간오지소도시인안동에까지최루탄이입성하여처음으로매운맛을퍼뜨린것도 1986년의일이었다. 근 10년동안활동을꾸준하게펼쳐온가톨릭농민회안동교구의‘ 성과 ’중 하나였다. 또한 안동농민회와 연대활동을 벌이던 안동대학교 학생들 중 10여 명은 5 · 3 인천민주화운동으로수배를받고있던무렵이었다. 그때‘ 목수망치사건 ’이터졌다.

7월 20일일요일이었다. 삼복더위가시작되고모두들 산으로 들로 피서를 떠난 한가로운휴일이었다. 안동농민회관에서가톨릭농민회안동교구주최로농촌문제해결을위한지도자연수회가열리고 있었다. 그 자리에 안동대학교 학생들이 농축산물 수입반대를 주제로 한 마당극을 올리기로 했다. 농민회관에서는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었고마당극패는강변에서연습을하고있었다.

“ 살인농정책임지고전두환은물러가라! ”

“ 농민죽이고나라망치는농축산물수입정책즉각중단하라! ”

이런 점잖은구호를 외치는가하면,“ 레이건을 박살내고 전두환을 때려잡자! ”등 사뭇 선정적인 구호도곁들인마당극최종리허설을하고있을때였다. 종이로만든미사일로성조기를두른백악관관장에게똥칼을먹이는장면도있었다.

그때 20대청년 두명이 한판 시원하게 수영을하고나와 구경을했다. 마당극패가풍물을두드리며신명나게 노는줄 알았던 모양이었다. 처음에는 풍물소리에 맞춰 제법추임새도 넣으며어깨춤을추기도했다. 그런데갈수록내용이그들에게는심상찮았던지시비를걸었다.

“ 야, 요것들봐라! 이제보니순빨갱이새끼들이네! ”

“ 이새끼들이여기가어디라고지랄들이여! ”

그러나 운동권 마당극패라고 어디 만만한가. 그들을 얼러 쫓아버렸다.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모두들땀을뻘뻘흘려가며연습을마치고농민회관으로향했다.

“ 어! 아까그놈인데, 한판붙자는모양인데? ”

아닌게아니라그중한청년이방죽위에서비비화신발끈을고쳐매며노려보고있었다. 그청년은이소룡 같은폼으로 선제공격을했다. 마당극패도 뒤질 새라 북채와쪽수로 밀어붙이며 천방으로올라섰다. 티격태격하며몇 합씩 주고받는데 멀리서한 청년이 무언가를 돌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비비화신발과한패인그청년이었다. 그는마치로데오의사나이처럼머리위로무언가를휘돌리며오는데맙소사, 자루가길고날렵하게생겨먹은목수망치였다.

그때부터사태는역전이되고말았다

“ 여자들은빨리피해. ”

삽시간에들이닥친망치세례로마당극패는사분오열오합지졸이되었다. 패를이끌던수장은북채로합을겨루며수차례가격을했지만역부족이었다. 머리에한방맞고그로기였다. 로데오는닥치는대로망치를휘둘렀다.

‘ 척후병 ’이 사태가 심상찮음을 알고 농민회관에 구원을 요청했다. 그중 용감한 운동권선배 하나가달려나왔다. 마침농민회관진입로가로수부목으로대어놓은긴쇠파이프를뽑아휘두르며대항했다. 그러나긴무기는다음동작이어려웠다. 로데오는한방맞고달려들어두방때렸다. 머리와 등짝 할 것 없이 무차별 가격이었다. 그때 교육을 받던 농민들이 우르르 달려 나오자 그들은 퇴각했다.

부상자 3명은 즉각 안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사태가 진정되고 마당극을 올렸지만 주요출연자의부상으로기가막힌상황이연출되었다. 배우하나는아예대본을들고읽을수밖에 없었다. 마치대본에대본을들고읽으라는지문이있는것처럼.

기가 막힌 상황의 마당극

얼이 빠진 한 배우는 전두환의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시종 실수를 저질렀다. 전두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러게나 말입니다. 홍홍. ”해야 하는데 계속“ 그러나게 말입니다. 홍홍 ”을 연발했다. 그덕분에전두환역을맡은배우에게“ 그러나게가아니고그러게나라니까, 그러게나! ”라는 핀잔을 들으며 연신 두들겨 맞았다. 그래도 정신이 안 드는지“ 그러나게 말입니다. 홍홍 ”이 계속이어져나왔다.

그때를생각하니한번은 소름이, 한번은분노가, 한번은웃음이스쳐 지나간다. 공권력앞에서는 그렇게도용감하던마당극패들이시민의망치에는약한모습을보인경우였다. 누군가도쇠파이프를뽑아들었지만, 한차례도가격하지못하고맞기만하였다.

그사건은합의로 끝났지만, 단순폭력사건의 조서를 정보과의 낯익은 형사들이 꾸몄다. 그러나 그청년들이지불하겠다던치료비는아직도미불로남아있다. 그들의안부가궁금하다. 같은세대의다른모습은그시대의씁쓸한삽화로아직누군가의머리에새겨져있다.

<안상학 시인>